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7. 11.(금) 17:00

전문가들 “고려인 청소년 교육에 관심·지원을”...동포청 “정책 반영 노력”

- 11일 아시아발전재단 포럼에 교육전문가 30여명 참석해 발표와 토론
-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 의견 청취...“정책적 지원 위해 최선을” 약속

-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11일 “정부의 관심과 지원”을 한목소리로 요청했고,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답했다.
- 아시아발전재단(상임이사 조남철)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고려인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모색을 위해 ‘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’을 개최했다.
- 이 포럼에는 조남철 상임이사를 비롯해 소학섭 로템나무 국제대안학교 이사장, 김기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위원, 김태옥 충북대학교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,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(KGN) 이사장이 참석했다.
- 또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장, 김조훈 경주 하이웃이주민센터장,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,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,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고려인 청소년 교육 관계자 30여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.
- 정부를 대표해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와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.

□ 포럼은 ‘고려인 청소년과 학교 밖 교육’, ‘고려인 청소년과 진로 교육 멘토링’, ‘자유토론’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.

○ 소학섭 이사장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정체성 혼란 등 고려인 청소년들이 공교육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은 뒤 “현재 한국 최초의 고려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.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” 고 했다.

○ 김기영 연구위원은 “고려인 청소년들은 ‘한국인’, ‘고려인’, ‘외국인’ 이라는 경계에 있는 존재” 라면서 “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” 고 강조했다.

○ 김태욱 교수는 청주 고려인 밀집거주 지역내 청소년 멘토링 현황 등을 발표하고, 충북지역에서 진행중인 역이주와 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을 소개했다.

○ 채예진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이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. 청년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, 재외동포(고려인) 대상 영주권·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, 심리 건강 지원 필요 등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.

□ 이와 관련, 이기성 국장은 “정부는 역사적 굴곡 속에서 고려인들이 겪은 고통과 애환을 기억하고 있으며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밝혔다.

- 한편, 재외동포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국내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* 개최를 추진 중이며, 국내 동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.

* 관계부처, 지자체, 국내동포단체,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와의 정기적 소통 및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의 장

- 7.23. 국내 동포의 지방 정착, 8.29. 고려인 동포, 9~10월 중 중국 동포 관련 총 3회 개최 예정

붙임 : 관련 사진 2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	책임자	팀장	황유경	032-585-3280
		담당자	주무관	윤기호	032-585-3282